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역량에 대한 융합적 외부평가 경험

홍은희, 김묘경*
서울여자간호대학교

Experiences of convergence external appraisal of competency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in final year nursing students

Eunhee Hong, Myo-Gyeong Kim*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요약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역량에 대한 융합적 외부평가 경험을 탐색하고자 시도된 질적 연구이다. 평가를 경험한 간호학생 8명을 의도표집하여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자료수집을 한 후, 지속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과 범주형 내용 분석법(categorical 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은 외부 평가로 인한 부담감과 중압감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자기성찰을 통한 마음 다스림과 동료들과의 협력으로 간호 술기를 숙련되게 체화시키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외부평가를 받는 학생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었다. 추후 융합적 외부평가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중재연구를 제안한다.

• 주제어 : 간호교육, 간호술기, 간호학생, 학생경험, 융합적 학생수행평가

Abstract This is a qualitative study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convergence external appraisal of competency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in final year nursing students. Eight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evaluation were intentionally sampl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nstant comparative and categorical content analysis after collecting data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nursing students sublimated mental stress such as burden and pressure of the evaluation into a positive experience that they skillfully improved their nursing skills through mind control and cooperation with peers. Therefore, this study enabled u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students receiving external appraisal. In addition, intervention studies to alleviate mental stress on convergence external appraisal are needed.

• Key Words : nursing education, nursing skills, nursing students, student experiences, convergence student performance appraisal

1. 서론

간호는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수행하는 실용학문으

1.1 연구의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김묘경(myogyong.kim@gmail.com)

Received June 8, 2017

Accepted September 20, 2017

Revised July 11, 2017

Published September 28, 2017

로 간호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통합적 교육을 통해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1]. 기본간호술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임상수행능력 중 가장 기본적인 실무능력으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기술이다[2].

병원에 처음 입사한 신규간호사에서 업무수행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기본간호술의 숙련된 수행은 업무 환경이 일반병동이든 특수병동이든 무관하게 간호업무에서 기본적인 필수 업무이다[3]. 이러한 간호사 직무수행에 있어 수행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술기를 핵심기본간호술이라고 한다[4]. 신규간호사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 간호업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응급상황 대처 능력 부족 등으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5], 이는 간호업무 수행 제한, 재교육을 위한 비용과 시간의 소모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6], 이직의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5].

따라서 졸업간호사의 임상현장에서의 적응을 돕고, 간호전문직에서 요구하는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은 졸업시점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4], 이러한 임상수기 역량 평가는 간호교육 인증평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7]. 이러한 성과 평가를 통해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라는 상황은 학생들에게 시험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시험불안은 자신의 능력을 평가 받는 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황, 시험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 타인과의 비교, 낮은 자신감으로 인한 두려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8] 적정 수준의 불안은 성취동기를 유발하지만, 과도한 시험불안은 시험문제의 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생각을 하게 하거나 시험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하게 하여 능력 발휘를 방해한다[8]. 더구나 개인에 대한 개별 학생 평가가 아닌 무작위 선발된 소수의 학생이 학교의 성과 수준을 대표하게 되는 상황은 대상 학생들에게 과도한 긴장, 불안도,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과 달리 저학년 때 학습한 기본간호실습부터 2년 여에 걸친 임상실습 및 핵심기본간호술 과목 운영을 통한 재교육 등 체계적인 간호교육 과정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을 훈련하여 외부 평가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대처

하고 여러 교훈을 얻는 등의 긍정적인 경험도 있을 수 있겠다.

현재까지 핵심기본간호술 연마를 위한 다양한 학습전략이 시도되었으며[9], 관련 연구로는 사전 동영상 학습[10], 비디오 녹화 수업이나 비디오 매체 적용[11,12,13], 스마트폰 동영상 활용[14,15], 시뮬레이터 적용[16,17,18,19], 표준화 환자 이용[16,18,20], 핵심기본간호술 강화프로그램[9] 등의 수업방법 적용으로 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에 대한 자신감, 자아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 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등의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외에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역량이나 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9,21,22], 이러한 평가는 대부분 실습 지도교수에 의해 대학 내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학의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간호교육평가원과 같은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는 아니었으며, 더욱이 학교를 대표하여 그러한 평가를 받은 학생들의 경험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그러므로 간호교육평가원의 평가대상으로 선정되거나 혹은 표준화 환자로 평가 현장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명백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겪은 평가 경험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들의 관점에서 외부평가를 받은 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평가상황의 학생들을 이해하고 교육방법에서의 개선점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과 성취수준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수준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은 경험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평가받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 역량에 대해 융합적 외부

평가를 받은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포커스 그룹 면담 방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졸업학년 간호학생 중에서 한국 간호교육평가원에 의해 핵심기본간호술 역량 평가 대상으로 최종 선발된 3명과 일차 평가대상자 30%에 뽑힌 학생 중 5명으로 구성된 총 8명을 의도적으로 표출하였다. 일차 평가대상자 중 선발된 4명은 표준화 환자로 활동한 학생이다. 연구주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포커스 그룹의 가장 이상적인 크기로 제시되는 6~8명[23] 중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S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SWCN-201608-HR-001-02)을 받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6월 19일 포커스 그룹 면담과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설문지를 통해 성별, 연령, 종교, 희망 취업분야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수업이 모두 종료된 학기 말에 대학 세미나실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녹취되었다. 연구자에 의해 참여자의 진술내용이 메모되었다. 연구자 1인은 박사논문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1인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 교과목을 이수하고, 포커스 그룹 면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판단중지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았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참여자의 구술에서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연구 질문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자기소개 후, 주 질문과 보조 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주 질문은 ‘핵심기본간호술 간평원 평가를 받은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이었다. 보조 질문은 ‘핵심기본간호술 간평원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느낌’, ‘30% 평가대상에 선정되었을 때 느낌’, ‘핵심기본간호술 간평원 평가 준비 과정에서의 만족/불만족스러운 경험’, ‘평가 준비 혹은 평가 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 방법’, ‘핵심기본간호술 간평원 평가를 통해 배운 점’, ‘향후 평가

준비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이었다. 마무리 질문은 ‘핵심기본간호술 간평원 평가 대상으로서의 경험과 관련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이었다. 타당도에 해당하는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면담 후에 연구자가 각각의 질문이 끝날 때마다 질문의 요지를 요약하였고, 면담 종료 시 전체 면담 내용을 요약하여 참여자에게 면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2.4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면담 일주일 전에 전화로 면담의 목적, 진행 과정, 주요 질문, 그리고 시간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최대한 익명성과 사생활이 보호되며,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을 경우 대답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 자료는 최대 5년간 연구자가 보관한 뒤 폐기할 것이며, 학회지에 출판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2.5 자료 분석

녹취된 면담 자료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의 구술에 사용된 언어 그대로 필사하여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엄격한 기준[24]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외적 표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면담은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후에 본 연구자가 각각의 질문이 끝날 때 마다 질문의 요지를 요약하였고, 인터뷰 종료 시 전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참여자에게 인터뷰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내적 표준을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평가대상 학생 2명에게 연구 결과물을 제시하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 있고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타당도에 해당하는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면담 내용은 Glaser와 Strauss [25]가 제시한 지속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ison analysis)의 코딩작업을 바탕으로 Lieblich, Tuval-Mashiach, Zilber [26]의 범주형 내용 분석법(categorical content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속적 비교 분석법의 코딩작업은 모든 자료의 범주화와 범주의 명명과정으로 진행된다. 범주형 내용 분석법은 텍스트(text)의 연관성 있는 부분을 모아 하위텍스트(subtext)를 구성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연관된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다. 텍스트 코딩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의 맥락과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단문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절되고 독립된 문장들 사이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을 비교분석하여 하위 텍스트에서 소 범주와 주제를 얻었다. 다시 같은 주제끼리 결합하여 중 범주와 대 범주인 영역을 얻어 주제를 결정하였다. 타당도 확보를 위해 두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추출된 주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다. 재배치하여 도출된 해석이 연구 참여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연구 참여자와의 확인 작업을 거쳤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통해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를 재차 읽어보면서 연구 의도와 기술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는 모두 간호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평균 연령이 22.8세였다. 종교는 무교인 경우가 5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희망 취업분야는 임상간호사가 6명(75.0%), 응급구조요원이 2명(25.0%)이었다. 참여자의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와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각각 평균 4.1점이었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

Variable	Category	N(%) or M(SD)
Sex	Female	8(100)
Age(years)	-	22.8(2.2)
Religion	Christian	2(25.0)
	Catholic	1(12.5)
	none	5(62.5)
Desired job	Clinical nurse	6(75.0)
	Rescue agent	2(25.0)
Satisfaction with nursing	-	4.1(0.6)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	4.1(0.6)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3.2 간호학생의 외부평가 경험에 대한 통합적 분석

본 연구를 통하여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외부 평가 경험은 <Table 2>에서와 같이 5개의 영역, 18개의 하부범주, 9개의 범주, 6개의 주제로 구분되었다.

3.2.1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느낌

주제 1: 심적인 부담감

<범주 1> 표준화 환자로서의 부담감

- 동급생을 지도하는 역할에 대한 부담

표준화 환자로 선정된 학생은 단순한 환자 역할만이 아닌 평가 대상 학생을 이끌어가며 instructor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동기를 지도하는 상황은 도전으로 느껴졌고, 더구나 자신보다 나이 많은 동기를 지도해야 하는 상황은 더욱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Instructor 역할까지 같이 했었잖아요. 그걸 하면서 내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됐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케어 할 수 있을까, 존중하면서 어떻게 더 잘 이끌 수 있을까... 정말 난처했어요.”

- 평가 대상 학생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입장

평가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핵심기본간호술 연습을 하는 중에 평가에 대한 긴장과 불안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고, 표준화 환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그들의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 힘들었다.

“30% 선발된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뽐냈다는 것에... 그 짜증과 스트레스를 저희가 받아야 하는 게 힘들긴 했어요.”

“30% 학생들이 짜증을 좀 많이 냈던 게...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범주 2> 잘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

- 내 손에 학교 운명이 달려 있다니!

평가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자신들이 잘 못할 경우 학교가 힘들어지고 자신들만이 아닌 후배들의 미래도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는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잘 하던 술기도 새롭게 느껴지고, 잘 알고 있는 것도 잊어버릴 것 같아 두려웠다고 한다. 자신의 실수가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감으

<Table 2> Experiences of convergence external appraisal of competency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Area	Sub-category	Category	Theme
Feeling of being selected for an evaluation subject or a standard patient	The burden to lead peers	Burden as a standard patient	Mental burden
	Being stressed from students to be evaluated		
	School fate depends on my hand!	Burden of doing well	
	The burden of being perfect		
	Why is it me?	Undesired choice	
Unsatisfactory part during preparing process	The feeling of loss	Difficulty preparing for evaluation	Sense of oppression
	Stressed by frequently changing techniques		
	Lack of school care		
How to have overcom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Idea shift to subjective mind	Trying to ease my mind	Governing one's mind
	The hard work is rewarding		
What you learned through the process	Relying on each other	Feeling a camaraderie	Living together
	Another chapter of learning	Wider range of thoughts	
	Evaluation is necessary		
Competency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Knowing one's sufficient and insufficient skills	Core skills learned in the body	I am a master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The questions about a specific technique swirl around my head		
	Now I skillfully do the core basic nursing skills!		
	I know exactly	Increased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I am confident that I do not need help from others		

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고 한다.

“저희 3명 손에 모두가 달려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만약에 실수해 떨어지면은 저희 학년 뿐만 아니라 저희 아래 학년까지 국가고시를 못 볼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모든 학교의 운명이 달려 있고, 저희의 운명까지 달려있으니까 너무 큰 부담이 되더라구요.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식은 땀 흘리며 별뼉뼉 깨고...”

-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

완벽하게 잘 해야만 한다는 생각과 이를 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심적인 부담을 느꼈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으로 이어졌다.

“반드시 잘 해야만 해”라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할 거면 진짜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평가 대상에서 제 이름을 듣고 나서 ‘연습 엄청 많이 해야겠네’라는 걱정과 불안감으로 기운이 쑥 다 빠졌어요.”

주제 2 : 억울함

<범주 1> 원하지 않은 선택을 당함

- 하필 왜 나야?

참여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교실에 앉아 있다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였고, 친구들

의 위로도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학생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눈물부터 났다고 한다.

“처음 (평가대상자로 호명)됐을 때는 부담도 되고... ‘아, 왜 하필 나야?’(목소리가 흔들림) 싶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멈추지를 못했어요.”

“나는 친구들보다 핵심술기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하필 왜 나야?(목소리가 떨림)”

3.2.2 외부 평가 준비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

주제 3: 중압감

<범주 1> 평가준비 과정의 어려움

- 손해 본 기분

참여자들은 원하는 병원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 영어 학원이나 자격증 코스 수강 등을 계획하였지만 학교에서 간호술 연습을 해야 해서 다른 학교 친구들이 스펙을 쌓는 동안 자신들은 뒤처진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손해 본 기분을 느꼈다.

“도의 학원이나 그런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핵심평가준비, 뭐 그런 스케줄이 잡히고 그게 좀... 평가준비로 손해 본 느낌이... 일정이 중복되어 힘겹고, 피곤하고...”

“우선 방학 동안에, 항상 뭐가 많아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 겨울에 다 하자라는 완전한 계획이 딱 있었는데, 제가 계획했던 게 다 없어진 거니까요.”

- 자주 바뀌는 술기법으로 스트레스 받음

평가 날짜가 다가오면서 일부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른 손동작 등의 디테일을 통일되게 바꾸는 작업이 조금씩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혼란스러움과 새로 익혀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계속 공지되는 새로운 술기 내용으로 인하여 머리가 혼란스러워짐을 느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수정되고 또 수정되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수업할 때 바뀌어있고, 또 30%할 때 바뀌어있고... 막 그런 게 조금... 중압감으로 느껴졌어요.”

- 학교의 배려 부족

술기 연습과정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음료수가 실습 도중에 먹기가 불편한 유형이어서 자신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여러 교수들이 평가 직전에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을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으나, 그러한 지지와 격려가 도리어 ‘잘못될 경우 다 내 책임’이라는 부담감을 가중시켰다고 한다.

“시원한 음료수 한 bottle이 아니라 페트병에서 주스를 종이컵에 따라 먹어야 한다든가, 그냥 커피팩, 티백 이런 거 하나씩 주고는, 알아서 먹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귀찮아서 안 먹고... 실습 중간에 (차를 타서) 먹기도 힘들고...”

“많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연습하는 실습실에 방문하셔서 지지 차원으로 응원해 주셨는데, 그게 학생인 저에게는 도리어 많은 부담으로 다가와서, (제 이름) 호명 후 꼭 참았던 눈물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3.2.3 어려운 점이나 그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주제 4 : 마음을 다스림

<범주 1>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노력

- 주체적인 마인드로 사고 전환

참여자들은 간호술 연습 후 늦은 저녁시간에 스펙을 위한 학원을 다녀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차츰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불평 하지 말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핵심기본간호술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잘 익히면 병원에서 남들 해낼 때 잘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바꾸면서 능동적인 자세로 연습에 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차피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려는 하기도 싫고 기분

도 나쁘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바꿔야겠다 싶었어요. 주체적으로요!”

“병원 입사해서 또 할 거, 이번에 확실히 하고 끝내자. 거기 가서 더 잘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더 낫겠다. 다른 친구들 해낼 때 나는 이때 그냥 해 버리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게 됐어요.”

- 힘든 과정이 보람된 일로

참여자들은 평가가 다 끝난 시점에서 연습했던 시간을 돌아해보면 힘든 과정이었지만 자신들에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람된 일이었다고 하였다.

“30%에 뽀하고, 동기들과 함께 연습했던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웃을 수 있는 보람 찬 기억입니다.”

“그 당시에는 반말이 컸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걸 끝나고 나서 나중에 임상이라든가, 임상에서 실제적으로 뭔가를 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될 거 같아요.”

3.2.4 외부 평가 준비 과정을 통해 배운 점

주제 5: 더불어 살아가는 삶

<범주 1> 동지애를 느낌

- 서로 의지함

참여자들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교수님과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표준화 환자에 많이 의지하면서 평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술기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게 되었으며, 힘들 때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정신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표현하였다.

“솔직히 SP가 똑똑한 사람을 뽀잖아요. 틀려도 바로 알려주고 하니까 SP가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SP하는 애들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봐주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하면서도 모르는 거 있으면 SP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모르는 거는 바로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서 알려주고, 이런 게 고마웠어요.”

<범주 2> 도움을 주는 마음을 느낌

-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됨

참여자들은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간호사, 환자 역할을 하고, 서로 역할을 바꾸며 연습을 진행하다 보니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더 노

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타 학교에 비해 풍부한 물품 지원을 받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학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왜 저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환자 입장, 간호사 입장을 돌아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게 된,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물품 같은 건, 학교가 지원해 주신 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엄청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연습도 즐거워지고... (학교에 대해 불평하는) 친구들한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범주 3> 사고의 폭이 넓어짐

- 또 다른 배움의 장

참여자들은 외부평가 준비를 위한 핵심기본간호술 연습과정을 통해 단순한 술기 향상뿐만이 아니라 의료진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나 의사소통, 환자를 이해하는 마음, 이론과 술기의 통합 등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론이랑 술기랑 통합된, 실제 적용된 느낌이 들었어요.”

“시나리오에 따라 하다 보니 의료인으로서의 태도를 깨닫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마음이 되게 커진 거 같아요. 환자도 이해하게 되고...”

“(사고의) 폭이 되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말해야 하는지...”

- 평가는 필요한 것!

참여자들은 평가가 스트레스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감을 부여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극제로 작용하기에 평가를 받아본 경험은 받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평가대상자로 선발된 순간에 받은 스트레스보다 평가 후에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확실히 진짜 해 보고 안 해보고, 평가를 받고 안 받고는, 확실히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3.2.5 자신의 핵심기본간호술 역량

주제 6: 나는야 핵심기본간호술 마스터

<범주 1> 체화된 핵심술기

- 부족한 술기를 알게 됨

참여자들은 평가준비 과정을 통해 자신이 잘하는 술기와 부족한 술기를 파악하게 되었고, 한 술기 내에서도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그 부분에는 더 집중을 하여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계속 실수하니깐, 아, 나는 여기서 실수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관내흡인에서 장갑을 벗고 흡인압을 꺼야 하는데, 자꾸자꾸 장갑을 낀 채로 압을 끄는 실수를 하니깐 주의해야 해 하고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고쳐지더라고요.”

- 술기에 대한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름

참여자들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지 등 끊임없이 궁금증이 생기고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공부 많이 되었다고 한다.

“술기를 하면서 그 술기에 대한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자체가 되게 공부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순서는 잘못된 거 같으니 교수님한테 물어보자, 이라고, 뭔가... 자발적인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 이전 자연스럽게 핵심술기가 술술!

참여자들은 많은 연습으로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술기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하여, 잠을 자다가 막 깨어났다 해도 자신 있게 술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였다.

“계속하다 보니까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 술기가 술술 나왔던 거 같아요.”

“잠깐 기억이 안 나도 몸이 먼저 자연스럽게 술기를 이어가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범주 2> 핵심술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

- 정확히 알게 됨

참여자들은 평소 안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대충 넘어간 부분인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사소한 동작들까지도 교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환자 안전을 생각하며 정확하게 간호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전체 술기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작은 부분에서의 실수 같은 걸 좀 더 보완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환자 안전이 중요하다,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IV 할 때도 좀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다는지, 손도 계속 씻고, 장갑도 계속 바꿔 끼고... 환자 입장에 대해...”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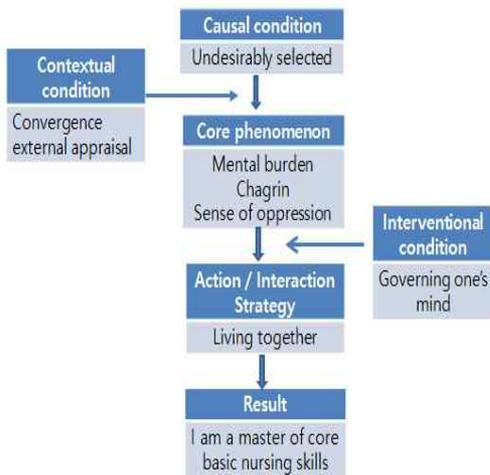
참여자들은 신규 간호사로 병원 생활을 할 때 선배 간호사의 도움 없이도 핵심기본간호술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중에 신규간호사가 돼서 정말 자신 있게, 배운 대로 무균술을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100점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입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요.”

3.2.6 상황적 모형

본 연구결과를 [Fig.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외부 평가를 받게 되는 졸업학년 간호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작위로 학교를 대표하는 평가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정신적 부담감, 억울함, 중압감을 경험하게 되지만 점차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협동하며 서로 도와 핵심기본간호술을 숙련되게 수행하는 마스터가 되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A paradigm model for the experience of convergence external appraisal of competency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in final year nursing students

4. 논의

간호학에 있어 교육목표 달성 평가는 설정한 학습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목

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간호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학습자의 개선점을 확인하며, 학습 환경을 개선시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27] 점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다. 졸업학년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교육평가원에 의해 실시되는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도 이러한 교육목표 달성 평가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28]. 본 연구는 이러한 외부 평가를 받은 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시도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학교를 대표한다는 학생들의 심적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손에 학교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생각에 잠도 잘 못 자고 ‘자다가도 식은 땀 흘리며 벌떡벌떡 깨기도’ 하였다. 또한 ‘하필 왜’ 다른 친구들보다 술기가 부족한 자신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나, 취업 경쟁자들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스펙을 채길 때 자신들은 술기 연습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손해 보는 느낌에 ‘억울함’도 호소하였다. 표준화 환자 역할을 하는 학생은 평가 대상 학생의 스트레스를 받는 입장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밀한 손동작 등 학생들의 통일된 술기 수행을 위해 준비과정 중간에 몇 차례 변경된 ‘디테일 수정’에 부담을 느끼고 불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당일 응원과 지지를 위한 여러 교수들의 방문이나,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음료의 제공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중압감을 가중시키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학교의 배려 부족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외부평가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평상시 수업에서와 같이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가 준비기간은 가급적 사전에 일정을 공지하여 학생들의 개인적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별 학생들과 수시로 상담하여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평가 준비과정에서 표준화 환자 역할 학생들의 instructor로서의 적용은 평가 대상 학생들의 정서적 지지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술기 습득에 상당한 도움이 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준화 환자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기호를 고려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나 평가 당일 교직원들의 응원과 지지를 위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여 평가대상 학생이 평소와 다름없는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학교의 배려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여러 교수 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추가적인 변경이 적을 것이며, 기존 평가경험에서 얻은 교훈으로 아주 세부적인 지침까지 가이드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10]. 이러한 지침서에 간호사와 환자의 가상 대화 및 간호수행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학생들이 스스로가 상황에 맞는 대화와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최근에 개정된 프로토콜에 정확히 맞는 핵심기본간호술 동영상 제작이 요구된다.

한편, 참여자들은 핵심기본간호술 외부평가 준비 과정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기 향상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상황에서의 의료인의 태도, 의사소통 능력,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이론과 술기의 통합적 적용, 책임감 등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평가를 ‘또 다른 배움의 장’을 여는 기회로 생각하고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며, 평가로 인해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배움의 확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비록 교내 시험이지만, 평가를 통해 임상수행 자신감이 향상되고 비판적 사고능력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29,30].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저학년에서의 기본간호실습을 시작으로, 임상 실습을 통해 배우고 적용하며, 부족한 술기 연습은 졸업학년에 시뮬레이션 수업과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으로 보충하여 숙련된 술기를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30-33]. 또한 상황에 맞는 핵심기본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임상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 중심의 실습교육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통합적인 시나리오 개발이 필요하다[34,35].

연구 참여자들은 외부 평가에 대비한 준비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실기를 파악하고, 반복훈련과 일대일 교육을 통해 숙련될 수 있도록 보충할 수 있었다. 반복 연습은 술기를 몸으로 익혀 어떤 순간에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우므로[36] 충분한 연습 시설과 기자재 및 물품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부족한 실기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실제 소변이 나오는 모형을 이용하여 도뇨 훈련을 하는 등 최대한 실제 임상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37]. 또한 스마트폰 동영상의 활용이나 디브리핑을 통한 자기

성찰은 자신의 부족한 실기를 파악하여 한층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고[11,14,15], 외부 평가에 대한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간호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의 성과 평가의 일환으로 표본을 선정할 평가가 아니라 의학 분야에서와 같이 별도의 기관에서 국가고시처럼 개별적인 학생의 전수 실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용적으로는 단순 핵심기본간호술 하나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평가가 아니라, 복잡한 임상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여 필요한 여러 간호술을 우선순위에 맞게 적용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수정, 고시한 바와 같이 학교를 대표할 학생을 무작위로 당일 선정하더라도 정해진 평가 대상보다 더 많은 수를 선정하여 그 중 심리적 중압감과 불안도가 덜한 학생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약간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학교의 성과 평가의 공정성 및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 외부 평가를 받은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평가받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외부 평가로 인한 부담감과 중압감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자기성찰을 통한 마음 다스림과 동료들과의 협력으로 간호술기를 숙련되게 체화시키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승화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술에 대한 학생 성취수준 평가에 보다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임상 상황이나 외부 평가와 같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자세하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화 환자 적용과 디브리핑을 통한 자기 성찰 시간을 갖도록 지도하여 개별 학생의 술기 향상을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 시 학생들의 부담감과 중압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서부터 명상이나 심상요법, 이완요법 등의 스트레스 완화요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알아보는 중재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대학을 포함하여 대상자를 확대한 후속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M. Y. Jho, "Effects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Self-efficacy, Clinical Compet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1, No. 3, pp. 292-301, 2014.
- [2] S. N. Park, S. K. Lee, "Factors Influencing Basic Nursing Skil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5, No. 1, pp. 6-13, 2008.
- [3] E. H. Chang, M. H. Mo, E. H. Choi, "A Comparative study on Perceived Importance and Frequency of Core Nursing Skills between General and Special war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2, pp. 1264-1272, 2015.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assessment Standards (for the course of the nursing bachelor's degree)*.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 [5] K. O. Park, J. K. Kim, "A Study on Experience of Transition from New Clinical Nurse to Competent Step",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 594-605, 2013.
- [6] S. K. Lee, S. N. Park, S. H. Jeong,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8, No. 4, pp. 460, 2012.
- [7] Y. H. Kim, S. Y. Hwang, A. Y. Lee, "Perceived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ew Graduat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37-46, 2014.
- [8] J. H. Rye, H. S. Shin, "How Test Anxiety Relates to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Testing Mediator Effects of Motivational Achievement Strategie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7, No. 1, pp. 147-164, 2006.
- [9] Y. O. Ha, J. Y. An,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Core Nursing Skills Improvement Program on Nursing Skills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5, pp. 223-231, 2017.
- [10] Y. H. Kim, "Learning Motivations, Academic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Processes after Practice Education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0, pp. 6176-6186, 2014.
- [11] S. R. Song, "The Effect of Self-Evaluation Method using Video Recording on Competency in Nursing Skill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2013.
- [12] E. Y. Cheon, "The Effects of Video-aided Peer Feedback on Enhancing Nurs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Foley Catheteriz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pp. 43-51, 2013.
- [13] F. Paul, "An Exploration of Student Nurses' Thoughts and Experiences of using a Video-recording to Assess their Performance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during a Mock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10, No. 5, pp. 285-290, 2010.
- [14] S. S. Lee, M. K. Kwon, "Effects of Self-directed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using Smartphone Videos on Self-efficacy, Practice Satisfaction, and Skill Competency", *The*

-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3, pp. 255-263, 2016.
- [15] M. G. Kim, H. S. Lee, "Effects of Core Basic Nursing Education using Cellular Phone Video Recordings on Self-confidence in Performance, Achievement, and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4, No. 2, pp. 128-137, 2017.
- [16] G. E. Joo, K. Y. Sohng, H. J. Kim, "Effects of a Standardized Patient Simul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on Nursing Competence, Communication Skill,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Ability for Blood Transfu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2, No. 1, pp. 49-58, 2015.
- [17] H. K. Hur, Y. S. Roh, "Effects of a Simulation based Clinical Reasoning Practice Program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3. Vol. 25, No. 5, pp. 574-584, 2013.
- [18] E. H. Choi, Y. K. Kwag, "Nursing Students' Problem Solving, and Clinical Competence between Standard Patient and High Fidelity Simulator Simul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2, pp. 29-36, 2015.
- [19] M. Raurell-Torreda, J. Olivet-Pujol, A. Romero-Collado, M. C. Malagon-Aguilera, J. Patino-Maso, A. Baltasar-Bague, "Case-based Learning and Simulation: Useful Tools to Enhance Nurses' Education?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15. Vol. 47, No. 1, pp. 34-42, 2015.
- [20] S. Y. Park, Y. R. Kweon, "The Effect of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12. 21(1): pp. 79-88.
- [21] A. K. Han, D. S. Cho, J. S. Won,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and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s in Nursing Practicum among Final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4. Vol. 21, No. 2, pp. 162-173, 2014.
- [22] S. H. Bae, J. S. Park, "The Recognition of Achievement and Importance of Nursing Program Outcom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203-214, 2013.
- [23] R. A. Krueger, M. A. Casey, Designing and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In Social Analysis, Selected Tools and Techniques, p. 4-23,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2001.
- [24] E. G. Guba, Y. S. Lincoln,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1994.
- [25] B. G. Glaser, A. L. Strauss,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009.
- [26] A. Lieblich, R. Tuval-Mashiach, T. Zilber,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8.
- [27] H. Y. Lee, K. S. Oh, Y. H. Ahn, S. J. Lee, I. J. Kin, "Exploratory Study on Scales of Nursing Education Outcom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6, No. 1, pp. 53-60, 2010.
- [28]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Evaluation Items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 [29] J. S. Park, M. J. Choi, S. Y. Jang, "The Effects of Preclinical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 on Nursing Students' Confidence in Nurs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1, pp. 75-85, 2015.
- [30] J. H. Park, "The Effects of Clinical Convergence Self-directedness Practice Learning Program on Self-directedness and Competency in Fundamental Nursing Skill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51-58, 2016.
- [31] J. H. Park, "Mannequin Simulation in the Health Science",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2, No. 2, pp. 67-71, 2011.
- [32] J. M. Kim, Y. S. Choi, "Effect of Practice Education Using the Simulator,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Ability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4, pp. 263-270, 2015.
- [33] M. S. Jung, Y. S. Kwon, "Th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Re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and Confid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4, pp. 295-302, 2015.
- [34] D. H. Kim, Y. J. Lee, M. S. Hwang, J. H. Park, H. S. Kim, H. G. Cha, "Effects of a Simulation-based Integrated Clinical Practice Program(SICPP) on the Problem Solving Process, Clinical Competence and Critical Thinking in a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3, pp. 499-509, 2012.
- [35] H. S. Kim, H. R. Park, E. H. Park, "Empowerment on Clinical Nursing Skills Core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12, pp. 589-599, 2014.
- [36] J. H. Kim, I. H. Park, S. J. Shin, "Systematic Review of Korean Studies on Simulation within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307-319, 2013.
- [37] Y. A. Song, "Effect of Simulation-based Practice by applying Problem Based Learning on Problem Solving Process, Self-confidence in Clinical Performance and Nursing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20, No. 4, pp. 246-254, 2014.

저자소개

홍 은 희(EunHee Hong)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여자간호대학 간호학과 졸업
- 2017년 2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간호교육, 정신간호, 스트레스관리, 노인간호

김 묘 경(Myo-Gyeong Kim) [정회원]



- 1990년 2월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99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4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기본간호, 노인간호, 의료의 질과 성과